

# 참고자료\_ 행동영역과 국어공부법

## 독서에 대하여

각 행동 영역이 독서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을 지칭하며, 이러한 능력은 학습 방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동 영역별로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어휘·개념

- ✓ 행동 영역: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및 기본 개념 이해 능력 측정.
- ✓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독서 시,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어휘와 개념의 이해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글의 명시적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는 학습 방법은 어휘·개념 영역의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2. 사실적 이해

- ✓ 행동 영역: 말이나 글의 내용 정확히 파악 및 정보 간 관계 이해 능력 측정.
- ✓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학습 방법은 사실적 이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3. 추론적 이해

- ✓ 행동 영역: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논리적 추론 능력 측정.
- ✓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글에서 숨겨진 의도나 목적,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 학습 방법은 추론적 이해 능력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 4. 비판적 이해

- ✓ 행동 영역: 말이나 글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주체적 평가 능력 측정.
- ✓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 통합하며 재구성하여 읽는 방법은 비판적 이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 5. 적용·창의

- ✓ 행동 영역: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맥락에 개념과 원리 적용 및 활용 능력 측정.
- ✓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독서 과정에서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은 적용·창의 영역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각 행동 영역은 독서를 통해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들을 대표하며, 제시된 독서 학습 방법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독서의 방법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분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기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 문학에 대하여

각 행동 영역이 독서 과정에서 발휘되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을 지칭하며, 이러한 능력은 학습 방법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동 영역별로 독서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어휘·개념

- ✓ 문학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문학에서의 기본 개념 이해는 어휘와 개념 영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탐구하며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 2. 사실적 이해

- ✓ 문학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문학 작품의 사실적 수용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가와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실적 이해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3. 추론적 이해

- ✓ 문학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추론적 이해는 문학 작품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문학에서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4. 비판적 이해

- ✓ 문학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비판적 이해는 문학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학에서는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비판적 이해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 5. 적용·창의

- ✓ 문학 학습 방법과의 연관성: 적용과 창의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학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문학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이 영역과 매우 밀접합니다.

각 행동 영역은 독서를 통해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들을 대표하며, 제시된 독서 학습 방법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구분	학습 방법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하기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기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기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 문제의 오답논리와 행동영역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출제되는 지문 이해 문제는 크게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와 비판적 이해를 묻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적 이해 문제는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글의 표면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비판적 이해 문제는 지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문에 담긴 생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비판적 이해 문제는 다시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첫째**, 글의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글에서 제시된 주장이나 근거가 타당한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묻는 문제이다.
- ✓ **둘째**,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는 글의 전개 방식, 논리적 흐름 등을 묻는 문제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셋째**, 글의 주제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는 글 전체의 주제 의식이나 필자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 ✓ **넷째**,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이는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등을 묻는 문제이다.
- ✓ **다섯째**, 관점이나 견해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이다. 이는 지문에 나타난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다른 지문 또는 상식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사실적 이해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단순히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글에 담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며, 필자의 가치관이나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문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 수능국어 행동영역이 의미하는 바

윗글은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능 국어 영역의 행동 영역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어휘·개념**: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사용된 어휘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수능 국어 영역의 '어휘·개념' 행동 영역과 연관됩니다.
- ✓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읽기의 전제 조건은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적 이해' 행동 영역에 해당합니다. 글의 표면적 내용, 정보 간의 관계, 글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읽기는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추론적 이해' 행동 영역과 관련됩니다.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전제, 함축적 의미 등을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 ✓ **비판적 이해**: 윗글에서 설명하는 비판적 읽기의 핵심은 글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판적 이해' 행동 영역과 직결됩니다. 글의 타당성, 신뢰성, 가치 등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 ✓ **적용·창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독자는 새로운 맥락에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용·창의' 행동 영역과 연관됩니다.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거나, 비판적 읽기를 통해 새로운 글을 생산하는 능력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비판적 읽기는 수능 국어 영역의 다양한 행동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 추론과 평가, 적용과 창조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읽기는 국어 능력의 종합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

## 수능 국어는 상식이다!



# 교육청이 말하는 국어 공부법

## 가 시험의 성격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에서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중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담화 및 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 나 평가 목표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의 출제 범위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므로 국어 영역의 내용 영역별 평가 목표는 각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된다.

### 1) 내용 영역

#### 독서

독서 능력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의 국어생활 맥락과 비판적·창의적인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설명문·논설문·서사문·보고서·생활문 등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문학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전 시가·고전 소설·고전 산문·민속극·현대시·현대 소설·현대극·시나리오·수필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화법**

화법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발표·토의·토론 등에 자주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다양한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대화·연설·토론·대담·협상·발표·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담화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담화 상황이나 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작문**

작문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대학 교육에서 보고서·문서·논문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아울러 국어 규범에 기초한 작문 능력,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쓰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정보전달·소개·보고·설득·비평·건의·친교·정서 표현·성찰 등 다양한 작문 상황을 설정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작문 과제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언어**

언어 능력은 사고와 언어의 관계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어 능력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또한 사회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음운·단어(어휘)·문장·담화 등 언어 단위의 체계와 역사에 대한 지식,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어 문화 소양, 다양한 시대나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는 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국어 지식이나 국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매체**

매체 능력은 현대 사회의 언어활동이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소통 방식 및 매체 언어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용,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인쇄·전자·매체 등 다양한 매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출제하되, 문항에서 요구하는 매체 언어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2) 행동 영역

### 어휘·개념

어휘·개념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과 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어휘의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독서, 문학 영역의 기본 개념도 어휘·개념 영역에서 다룬다.

###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는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내포적(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필자의 견해·주장·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는 말이나 글의 내용 및 형식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적절성·가치 및 우열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 적용·창의

적용·창의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성·조직·표현·수정하는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다** 학습 방법

1)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독서의 방법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분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 읽기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기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증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 방송사의 의뢰로 △△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출수형 7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문단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보를 살펴볼 때,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고 ㉢에도 위배되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지문과 <보기>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적절성 판단하기,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고,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의 중심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독서 교과서 등을 통해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개념 및 특성 등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거나 추론, 비판, 적용하며 읽는 데 필요한 요소 등을 학습해야 한다. 이때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 보는 연습, 글에서 제시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비교·분석하기

##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16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읽기 자료로 제시된 두 편의 글을 읽고, 글에 제시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분석하며 각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유학자들의 『노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의 4문단에서 설혜는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고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혜는 노자 사상을 두둔하는 학문적 입장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는 왕부지가 『노자연』을 저술하며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왕부지는 유학과 노자 사상을 대조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노자 사상을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혜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왕부지는 볼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글을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파악하기,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담고 있는 여러 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독서 교과서 등을 통해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 '주제 통합적 읽기' 및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의 관점을 파악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동일한 화제를 중심으로 글의 세부 내용 및 형식을 분석하여 정리하거나,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의 주장과 근거를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2) 문학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과 아울러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학적 인식과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문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하기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기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기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 비평을 활용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 예시 문항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몫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엮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 읍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려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저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21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고전 소설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어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원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은 <보기>를 통해 '인물 간의 대결 관계'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지문의 내용을 통해 원수는 '일세에 무쌍'한 창검술을 지니고 있고 초월적 능력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귀의 '비수'를 시험하는 것은 공주의 지혜로운 조언 때문이다. 원수의 칼에 기둥이 반밖에 베어지지 않자 크게 놀란 공주가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했다고 하는 데에서 칼을 시험해 보는 것은 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한 ㉕의 내용은 작품을 감상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 소설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파악하고, 작품 속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대화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서사 갈래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사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물의 말과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말과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하여 작품 감상하기

### 예시 문항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등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썹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sup>\*</sup>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잇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22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현대시 두 작품과 고전 수필 한 작품에서 각각 확인되는 작품들의 표현 방식과 효과를 서로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가)는 '푸른 이끼', '푸른 싹', '푸른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을 통해 '푸른'이라는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나)는 '-있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라든가' 등의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서술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의 특징과 그 효과를 비교·대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시나 고전 수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표현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학습하고,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작품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나아가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 교과서 등을 통해 현대시나 고전 수필 작품에서 활용되는 표현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표현 방식이 작품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개별 작품의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각 어떠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비교·대조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3)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발화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화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화법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말하기를 성찰하기
		화법 활동이 긍정적 자기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화법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파악하기
화법의 원리 와 실제	대화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기
	토론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협상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면접	면접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발표	청자의 관심, 요구, 지식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여 발표하기
	연설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연설하기
	상황에 맞는 화행	상황 맥락을 적절히 인식하고, 그 상황 맥락에 맞게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효과적으로 하기
	언어적·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기
	화법의 태도	화법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지니기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 발표에서 자료 활용 방식 이해하기

## 예시 문항

□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청중의 반응을 듣고) 네, 기억하는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대부분 모르는군요.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 작용에는 곰팡이의 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화면 제시) 이렇게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곰팡이의 균사인데요, 균사는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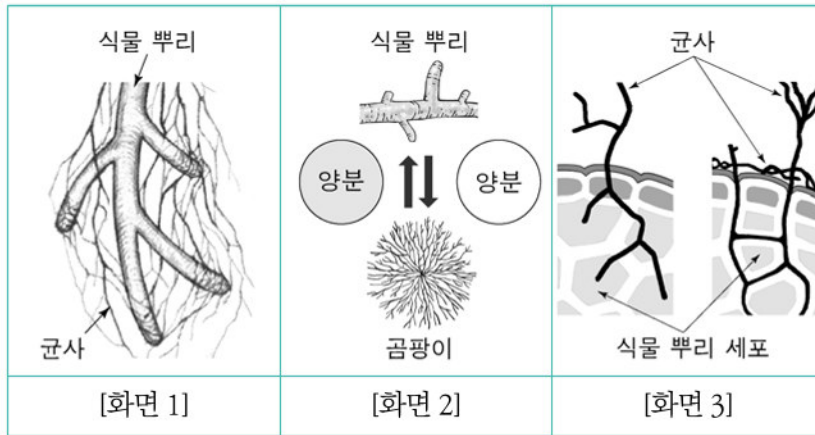
식물 뿌리와 연결된 곰팡이의 균사는 양분이 오가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서로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 화면 제시) 이렇게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도 곰팡이로 전달됩니다. 또한 균사는 땅속에서 퍼져 나가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식물 뿌리와 연결될 수 있고, 한 식물의 뿌리와 또 다른 식물의 뿌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과 식물을 연결한 균사를 통해 양분이 식물 간에 전달되지요.

아, 질문이 있네요. (질문을 듣고) 곰팡이나 식물에 눈이 있어 서로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와 식물 뿌리는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아 상대를 자기 쪽으로 유인하여 만날 수 있지요. 이해되었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곰팡이의 균사가 식물 뿌리와 연결되는 방식은 곰팡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 화면 제시) 화면의 왼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로 들어가는 곰팡이가 있고, 화면의 오른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의 겉면이나 식물 뿌리 세포를 감싸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곰팡이와 식물 뿌리의 상호 작용이 흥미롭지 않나요? 발표 내용이 잘 이해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면 1]은 균사가 식물 뿌리를 감싸는 정도가 식물 뿌리의 부위마다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② [화면 1]은 균사를 통해 한 식물의 양분이 다른 식물에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③ [화면 2]는 곰팡이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 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④ [화면 2]는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곰팡이로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 ⑤ [화면 3]은 땅속에서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는 균사가 주변에 서식하는 여러 식물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 제시하였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홀수형 36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발표 상황에서 청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학0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시각 자료가 발표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화면 2]는 식물뿌리와 연결된 곰팡이의 균사는 양분이 오가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로, 제시된 지문의 ㉠에 부합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뿌리로 전달되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도 곰팡이로 전달됩니다”라고 밝힌 부분을 고려했을 때, [화면 2]는 곰팡이의 균사가 양분 이동의 통로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④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중 분석 결과를 고려한 구체적인 발표 전략, 발표에 사용된 자료·매체의 내용 및 효과 파악 등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특성과 발표할 상황에 대해 적절히 분석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청중 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청중 분석의 내용과 방법, 청중 분석 결과를 고려한 구체적인 발표 전략 등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발표 계획 단계에서는 청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자료와 매체 활용 방법을 구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발표를 진행할 때 청중의 반응 등을 살피면서 발표 내용 및 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며, 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도 함께 해 보면 좋다.

##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 예시 문항

□ 다음은 방송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특별 기획 '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가 1: 이 지역은 ○○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행자: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A」 말씀이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 2: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1: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행자: 보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1: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보존 공간이 부족해 5년 만에 재증축한 □□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합니다.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2: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번 증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자: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B」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전문가 1: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2: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지요.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2: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C]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A]: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추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 ③ [B]: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B]: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이어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⑤ [C]: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38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방송 대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학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학02-08]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방송 대담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B]에서 진행자는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라며 박물관 공간 구성에 관해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어서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라며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논의할 사항인 ‘박물관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이어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④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법의 맥락 요인,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의 역할과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화법의 맥락 및 상황 파악하기, 상황에 맞는 말하기 전략과 효과 등을 학습해야 한다. 방송 대담과 같은 말하기 상황에서 진행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의 요약하기도 하고, 제안을 종합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가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중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청하기도 한다. 방송 대담을 시청하면서 전문가와 진행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 실제 방송 대담과 같은 말하기 상황을 연출하여 진행자와 참여자 역할을 직접 연습해 보는 것도 화법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작문

작문 영역에서는 작문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작문 상황에 적합한 글의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예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과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작문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작문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작문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며 자신의 글쓰기를 성찰하기
		작문 활동이 긍정적 자기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의 형성·유지·발전에 기여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파악하기
작문의 원리와 실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소개하는 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등 작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 쓰기
	보고하는 글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 쓰기
	설득하는 글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 쓰기
	비평하는 글	시사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 쓰기
	건의하는 글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 쓰기
	친교 표현의 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필자의 입장 등 작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교의 글 쓰기
	정서 표현의 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 쓰기
	성찰하는 글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 쓰기
작문의 태도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지니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작문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 맥락을 고려하여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기

### 예시 문항

- (가)는 '전통 문화 연구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교지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실기로 했잖아.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전통 한지에 대해 쓰기로 한 거 기억하지? 전통 한지의 우수성부터 이야기해 볼까?

학생 2: 조사해 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

학생 3: 나도 봤는데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목재 펄프로 만든 서양 종이는 빛에 취약해서 변색, 퇴색이 발생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야.

학생 2: 서양 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단 말이지?

학생 3: 응. 또 중국, 일본에도 전통 한지처럼 닥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전통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고 오래간대.

학생 1: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전통 한지가 정작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학생 2: 맞아. 잘 사용되지 않으니 제작 업체도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또 전통 한지가 계승될 수 있었던 건 장인들 역할이 큰데, 요즘은 기술 전수받을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해.

학생 1: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학생 2: 우선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지. 그러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닥나무만 사용해야 해.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해.

학생 3: 품질 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될 거야.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전통 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학생 3: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난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전통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공예품도 있잖아.

**학생 2:** 그런 데에 쓰이는 한지는 기계로 만들거나 수입산 닥나무로 만든 품질 낮은 한지가 대부분이야. 그렇게 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기 어려워.

**학생 3:** 민간에서 쓰이는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다는 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옛것을 유지해야만 전통의 계승일까?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

**학생 1:**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두루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학생 2:**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명품의 가치를 지켜 나가 전통 한지가 더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학생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비록 품질이 옛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더 가치 있다 생각해. 실제로 전통 한지가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화형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학생 1:** 얘기 잘 들었어. 들으면서 **메모** 해 두었으니 잘 정리해서 글을 써 볼게.

#### (나)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 한지의 장점은 보존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그중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전통 한지처럼 닥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의 종지와 비교해도, 전통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통 한지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제작 업체도 전수자도 줄어들어 향후 전통 한지의 명맥이 끊어질까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 나가기 위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료 측면에서는 국내산 닥나무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고 기술 전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통 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 전통 한지 사용을 장려하고 문화재 수리에도 전통 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전통 한지의 활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통 한지는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아 의류와 침구류 제작에 사용되고 있어, 그 응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한지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가치를 이어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다음은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대화 내용》	《떠올린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유점)</li> </ul> </li> </ul>	글에서 어떻게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성 뛰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에 안정적</li> <li>- 질기고 오래감</li> </ul> </li> </ul>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할 듯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부진: 업체 및 전문가 감소</li> <li>○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방식, 국내산 닥나무, 기술 전수</li> <li>• 정부 차원( ? )</li> <li>• 민간 차원(생활용품, 공예품)</li> </ul> </li> </ul>	글에서 모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의 계승: 자부심, 명품의 가치, 사용 가치</li> </ul>	분류가 필요할 듯 ㉣
	어떤 방안이 있을까? ㉤

- ①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은,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 ②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은,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 ③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은, 전통 한지의 보존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가 제외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 ④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은, 전통 한지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범주화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 ⑤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은, 전통 한지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 (나)에 반영되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홀수형 40번)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대화 맥락과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화작02-01]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의 학생들 대화 내용과 이로부터 떠올린 '학생1'의 생각이 (나)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에서 학생 2가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라고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 작성한 메모가 ㉠이다. (나)의 3문단에는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은 국내에서의 전통 한지 사용 부진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다는 ㉡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의 맥락 요인, 가치 있는 정보의 선별과 조직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작문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맥락의 개념과 기능, 맥락과 관련된 화법과 작문의 요소를 학습해야 한다. 또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 맥락과 조건에 맞게 고쳐 쓰기

### 예시 문항

-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불량 식품과 관련 있다고 들었어. 무엇이 불량 식품이고, 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교지 원고를 모집하던데, 불량 식품에 관한 글을 써 봐야지. 불량 식품의 개념과 불량 식품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고, 불량 식품을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나)

[학생의 초고]

불량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불량 식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 식품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불량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 무엇이 불량 식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군것질거리는 불량 식품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법규에 맞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져 유통, 판매되는 것이라면 불량 식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불량 식품일까?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해한 불량 식품이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불량 식품을 근절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교 주변에서 불량 식품 판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구역의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해 관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업체는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관련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량 식품 적발 유형 중 이물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 제도는 이물 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

■ 다음은 (나)를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어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마지막 문단이 있어야겠어.

- ① 소비자가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② 식품 산업이 변화하면서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로 홍보하는 식품의 신고 방법을 알면 불량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이물 보고 의무화 제도가 불량 식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불량 식품을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④ 식품 산업계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한 식재료를 식품에 활용하고 있다.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식품 생산에 집중할 전망이다.
- ⑤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 변화에 맞춰 무엇이 불량 식품이고 불량 식품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4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글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초고를 점검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고쳐 쓸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불량 식품에 관한 교지 원고 작성이라는 작문 상황을 이해하고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을 고려하여 초고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식품 산업의 변화'는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에 반영되어 있으며,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지니는 의의'는 "이 변화에 맞춰 무엇이 불량 식품이고 불량 식품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⑤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초고 수정하기, 작문에서 고쳐 쓰기의 원리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며, 고쳐 쓰기 원리에 따라 글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화법과 작문 교과서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과 그러한 글쓰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쟁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쓴 글을 다시 고쳐 써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 5) 언어

언어(문법) 영역에서는 언어의 본질, 언어 단위의 체계,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국어 자료를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국어의 특성을 타 언어와 비교하여 이해하고 세계 속에서 국어의 위상을 이해하기
국어의 탐구와 활용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하기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 탐구하기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관련 지식을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하기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문장을 사용하기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하기
	담화의 개념, 구성 요소, 맥락 등을 탐구하여 적극적으로 담화를 생산·수용하기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문화 등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기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기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언어의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국어 사용하기	
언어에 관한 태도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 지니기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지니기

예시 문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 → 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ㄱ’와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글	노로	피(산)	섬	빅얌(뱀)		
가획자	콩	뒤(띠)	벌	조히(종이)			
		고티	파	채	부형		
이체자	리홀(너귀)					어름	이스(아우)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톡/드리	플/그력(기러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브섭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릅(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굶 <sup>ㅇ</sup> (굶 <sup>ㅇ</sup> 뱅이)	반 <sup>되</sup> (반 <sup>되</sup> 붙이)	갸 <sup>(갸)</sup>
	범	섬 <sup>(섬)</sup>	갓	별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고티’(<고치)나 ‘덜’(<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섬’(<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드리’(<다리)나 ‘톡’(<턱)처럼 ‘ㆍ’가 변한 유형, ‘물’(<물)이나 ‘브섬’(<부익)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ㄱ>ㄱ’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부항’(<부엌)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갈’(<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ㅎ’으로 표기함.

■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리 던’(<별이 진)의 ‘던’은 ㉠에 해당한다.
- ② ‘서울 겨샤’(<서울 계셔)의 ‘서울’은 ㉡에 해당한다.
- ③ ‘플 우희’(<플 위에)의 ‘플’은 ㉢에 해당한다.
- ④ ‘산 거미’(<산 거미)의 ‘거미’는 ㉣에 해당한다.
- ⑤ ‘닥 님’(<닥나무 잎)의 ‘닥’은 ㉤에 해당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홀수형 36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중세 국어의 단어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연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에 제시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이 지문에서 언급한 변화 유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문 3문단의 ㉔에서 '부형'은 현대 국어로 오는 과정에 'ㅎ'이 약화되어 탈락하는 한편 접사 '-이'가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 '부영이'의 꼴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거미'는 단일어로 이중 모음 'ㄴ'이 'ㅣ'로 변하는 단모음화를 겪어 현대 국어의 '거미'가 된 것이므로, ㉔에서의 변화처럼 접사가 결합하여 새 단어로 만들어진 유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거미’는 ㉔에 해당한다"라고 진술한 ㉔는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여 단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중세 국어의 음운과 표기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자료를 탐구하여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등을 통해 국어의 역사와 각 시대별 국어의 특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각 시대별 국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 두면 좋다. 특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살필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운의 변동에 대해 탐구하기

예시 문항

□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빈],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밟는[밤:는], 닭장[닥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번핀]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 재밋는[재민는], 엽매는[엥매는]
-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겨닌녁]
- ③ ㉢: 똑같이[똑까치], 파묻힌[파무친]
- ④ ㉣: 읊조려[읍쪼려], 걸늘어[건늘겨]
-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베]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37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연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탐구 사례를 이해한 후,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버들잎'은 'ㄴ'이 첨가('ㄴ' 첨가)되고 'ㄴ'이 'ㄹ'로 교체(유음화)되며, 'ㅍ'이 'ㅂ'으로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되어 [버들립]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덧입어'는 'ㅅ'이 'ㄷ'으로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되고 'ㄴ'이 첨가('ㄴ' 첨가)되며, 'ㄷ'이 'ㄴ'으로 교체(비음화)되어 [던니버]로 발음되기 때문에,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㉔의 사례로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버]'를 제시한 ㉕가 정답이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의 변동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의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음운 변동이 실제 단어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연습은 물론,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어떤 환경에서 변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을 자료로 제시하는 유형의 문항들에 대비하기 위해,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의 조항도 함께 학습해 두면 좋다.

## 6) 매체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본질, 매체 언어의 특성과 소통 방식, 매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탐구하여 수용·생산·향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매체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매체의 본질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다양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기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하기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기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매체에 관한 태도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 지니기
	현대 사회에서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지니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 생산하기

### 예시 문항

-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세 번째 시간이죠.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네,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동주 맞아. 자리 말고 오느라 종례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예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재호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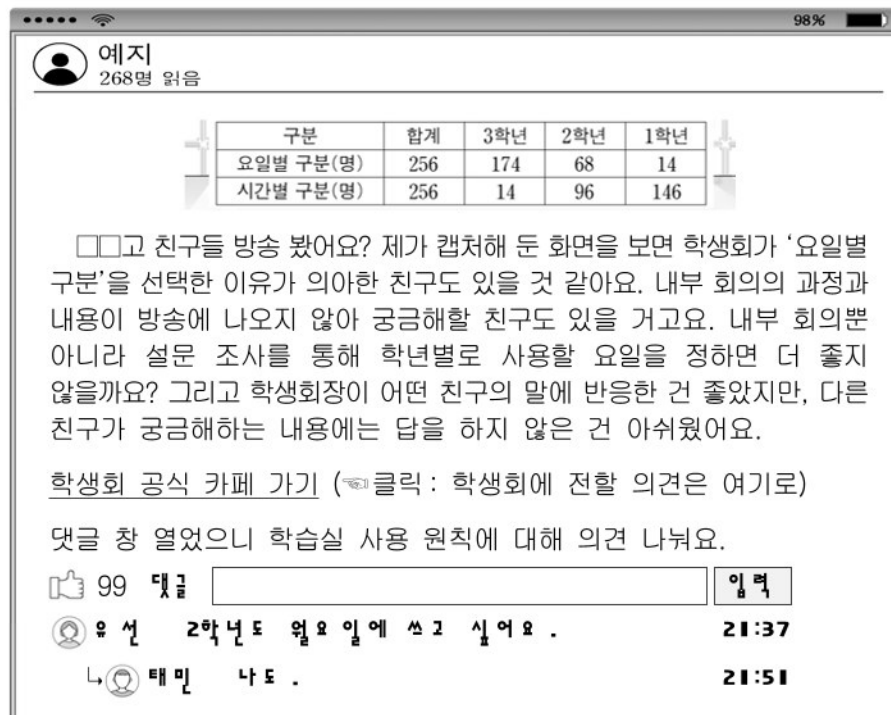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 현지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 연수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에서 학생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일단 ㉠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과 사용 원칙 마련에 ㉡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지. 또 ㉢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야지.

- ① ㉠: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 ②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 ③ ㉡: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2번)

##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소통의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메모에서 언급된 사항이 (나)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은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댓글 창 열었으니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 나눠요.”라고 하면서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댓글은 학습실 사용 원칙에 관한 내용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데, ㉡에서는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회가 마련한 학습실 사용 원칙은 대의원회 안건 상정 후 통과되면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학생회는 아직 학습실 사용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예지가 누리 소통망에 게시물을 올릴 시점에서는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라고 서술한 ㉡는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매체의 특성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안내

-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려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매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등을 통해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등 소통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는, 매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유의하여 매체 언어의 영향을 탐구하며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용, 활용, 생산하는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수능-EBS 연계 출제 정책’에 따라 국어 영역에서는 5가지 유형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수능 국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징과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문 활용 유형

지문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다양한 분야의 독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 예시 문항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뚝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A]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숲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33번)

EBS 연계 부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 고전 시가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웅당히 놀라리라  
해구(海口)를 얼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樞)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睡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앞앞이 우는구나

(2024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 66쪽)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33번은 2024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의 66-68쪽에 수록된 작품을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에는 김인겸의 가사 「일동장유가」의 일부분이 발췌되어 수록되었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 중 일부와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중 일부를 엮어 (가) 지문으로 제시하고, 비연계 작품인 유박의 「화암구곡」을 (나) 지문으로 구성하여 문항을 출제한 것이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33번을 포함하는 지문과 문항 세트이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이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학습할 필요가 있다.



## 2)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

핵심 제재·논지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화법, 작문, 독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담화나 작문 상황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 예시 문항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 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계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12번)

## EBS 연계 부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는 전국 시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이다. 그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하에, ㉠유교의 인의(仁義)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협에 빠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한비자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등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 인간을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통치자들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비자는 유가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노자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배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계를 인식하였다고 본 것이다.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법,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통치자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치자는 신중해야 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도 안 되며, 음악이나 유희에 탐닉해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虛靜)'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허(虛)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靜)을 독실히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한비자는 이를 통치 철학에 적용하여,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의 정황들을 알 수 있고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 자발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직무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도 강조하였다.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론은 법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자 했던 군주에게 채택되어 중앙 집권적 제국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치 이론가이다.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 후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통치론을 중세 시대 이후의 15세기 르네상스의 영향하에서 ㉔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군주론』이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존재인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규정하였다. 군주는 신을 대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이며, 세계의 근원이자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이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군주의 역량이란 신에 의해 부여된 비범한 것으로서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며, ㉕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으로 운명의 힘과 대결하여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잘 예측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명에 굴복하게 되므로 군주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에서 통치자의 유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㉖인간 본성이 어떠한지는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군주가 통치자로서 미덕을 떨리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는 유덕한 태도를 ㉗취할 것이 아니라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넘어서더라도 권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전쟁이 군주의 제일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군주가 군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므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통해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에는 군주가 그 집행을 신하에게 위임하되,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도 충고하였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현대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닌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3002-0242]

## 02 (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비자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한비자는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③ 한비자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④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개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군주는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뜻과 신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군주가 신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24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 242~246쪽, 244쪽 2번)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12번-17번 세트는 2024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의 242-246쪽에 수록된 지문에서 ‘한비자’라는 핵심 제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을 설명한 인문 분야의 지문을,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한비자’와 ‘여러 학자’의 『노자』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지문으로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즉,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는 (가)에서는 한비자가 『노자』의 ‘도(道)’ 개념을 자신의 통치론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고, (나)에서는 군주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을 설명하면서 두 사상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하였다. 반면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과목 홀수형 12번-17번 세트에서는 『노자』의 ‘도(道)’ 개념을 중심으로 (가)에서는 한비자의 견해를, (나)에서는 송나라 이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는 지문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독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다.

### 3) 자료 활용 유형

자료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자료, 문항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화법, 작문, 언어 영역 등에서 지문, <보기>, 답지의 사례 등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 예시 문항

□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고 동아리 매체통 x +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작성자: 재원

최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역시 밀림을 혼자 돌아다닌다든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참신함이 돋보인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

---

↳ 민수 나도 그 방송 봤어. 내가 모르던 낯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며 칭찬할 때에는 상업성이 짙어 보이더라. 그런 상업적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 혜원 어떤 1인 미디어 방송인은 특정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성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었어. 방송에 나오는 정보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해.

↳ **영진** 1인 미디어 방송들은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내가 보는 1인 미디어 방송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도,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이 발전해도 사회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 **지수** 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이 인기를 많이 끌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잖아.

댓글 등록

■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홀수형 45번)



□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근 1인 미디어는 제작, 편집, 유통이 비교적 수월해지면서 오디오나 동영상을 다루는 1인 방송의 형식을 띠기도 한다. 1인 미디어는 다양한 소재,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 통신, 접근의 편리함, 빠른 전달력 등이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의 소통 욕구를 충족하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매체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곡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되고, 상업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다.

- 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생산·유통하고 있다.
- ② 눈병 예방에 대한 매체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매체 수용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매체 생산자가 실시간으로 답하며 쌍방향 통신을 하고 있다.
- ④ 매체 수용자가 방송 내용 외에 다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의 영상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수의 매체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SNS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광범위하고 빠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완성 국어 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262쪽 41번)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홀수형 45번은 2023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완성 독서·문학·언어와 매체』의 262쪽 41번 문항에 수록된 <보기>를 자료로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한 것이다. 『수능완성 독서·문학·언어와 매체』의 <보기>에는 1인 미디어 방송의 장점과 부작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보기>를 활용하여 [화면 2]와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구성한 것이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홀수형 45번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지문이나 <보기>, 답지의 자료 등을 통해 익힌 내용을 새로운 사례들에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 4)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한다. 국어 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지닌 문항 유형을 적용하거나, 참신성을 지닌 문항 유형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 예시 문항

▣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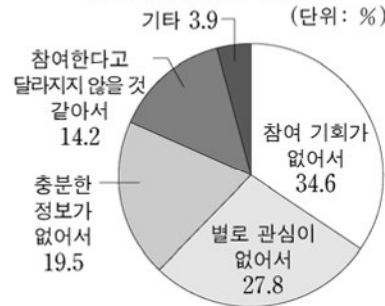
<보 기>

#### ㄱ. 기후 변화 대응 활동 관련 설문 조사 자료

(대상: 우리 지역 청소년 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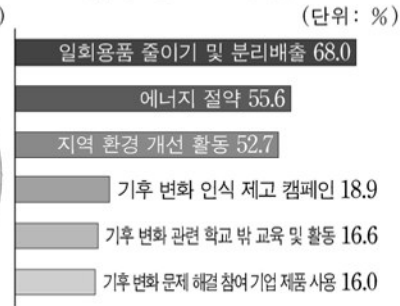
##### ㄱ-1. 참여하지 않은 이유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431명 응답)



##### ㄱ-2. 참여한 활동 (복수 응답)

(참여한 청소년 169명 응답)



#### ㄴ. 신문 기사

청소년 기후 변화 대응 세미나가 ○○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육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나 청소년들의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의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ㄷ. 인터뷰 자료

□□ 생태환경연구소 △△△ 박사는 “현재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국에서 설정한 목표로 감축을 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평생 동안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말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이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2문단에 구체화해야겠어.
- ② ㄴ을 활용하여, 기존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미나 참여자들이 동의한 내용을,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으로 4문단에 보강해야겠어.
- ③ ㄷ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로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ㄱ-1과 ㄱ-2를 활용하여, 청소년 다수가 참여한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사례로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⑤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나 캠페인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학교가 지원할 사례로 4문단에 구체화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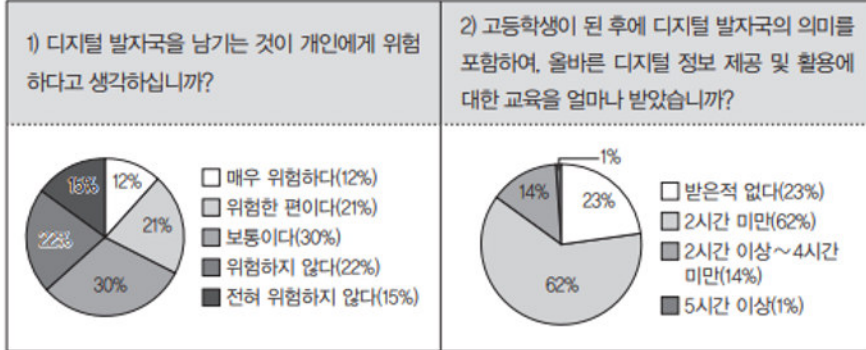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5번)

EBS 연계 부분

[23003-0081]

02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ㄴ. 연구 보고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디지털 발자국 자동 분석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킨다. 이때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 정보의 타사 제공을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한 제품, 성별, 나이 등의 정보가 다른 기업에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또 다른 곳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ㄷ. 전문가 인터뷰

"특정 정보가 상황에 따라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개인 정보가 담긴 쿠키를 삭제하거나 안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는 등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누리 소통망이나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청소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② ㄱ-2)를 활용하여,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 (나)의 내용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ㄴ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한 (나)에 맞춤형 광고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 ④ ㄱ-2)와 ㄷ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는 (나)의 내용에 특정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의 활용 정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2024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118쪽 2번)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5번 문항은 2024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의 118쪽에 수록된 2번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에 수록된 문항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 유형은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45번 문항에 적용되었다.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활용한 후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고쳐 쓰기와 관련한 작문 문항으로서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수능 기출 문항은 물론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문항을 파악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5) 개념·원리 활용 유형

개념·원리 활용 유형은 수능-EBS 연계 교재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기본적인 개념·원리를 설명한 부분 또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록하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시 문항

▣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의 유형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38번)

□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1 보기

[학습 활동] <자료 1>을 참고하여, ㉠이면서 ㉡인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만을 <자료 2>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료 1> 형태소의 종류

(1)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b>그</b> /-들/은/ <b>잘</b> /익-/-은/했-/ <b>과일</b> /을/먹-/-었-/-다
㉠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그/ <b>-들</b> /은/ <b>잘</b> /익-/ <b>-은</b> /했-/ <b>과일</b> /을/먹-/ <b>-었</b> -/ <b>-다</b>

(2)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예) <b>그</b> /-들/은/ <b>잘</b> /익-/-은/했-/ <b>과일</b> /을/먹-/-었-/-다
㉡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예) 그/ <b>-들</b> /은/ <b>잘</b> /익-/ <b>-은</b> /했-/ <b>과일</b> /을/먹-/ <b>-었</b> -/ <b>-다</b>

<자료 2>

맨손(맨- + 손), 집밥(집 + 밥), 접칼(접- + 칼), 살다(살- + -다), 여닫이(열- + 닫- + -이)

- ① 맨손, 집밥                      ② 맨손, 접칼                      ③ 접칼, 살다  
④ 집밥, 접칼, 여닫이            ⑤ 맨손, 살다, 여닫이

(2023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65쪽 3번)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38번 문항은 2023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65쪽 3번 문항에 제시된 형태소의 종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에 수록된 문항에서는 형태소의 종류를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동일한 예문에서 각각의 형태소에 해당하는 사례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38번 문항은 형태소의 종류를 표로 제시한 후, 주어진 문장에서 표의 ㉠, ㉡, ㉢에 속하는 형태소를 찾아야 하는 문항이다. 이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른 각 형태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러한 연계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EBS 연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어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